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2.2

담당부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12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월 CBSI 9.3p 하락, 17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연초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 하락,
중소업체 지수 큰 폭 하락해 CBSI 하락 주도 -

- 2012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비 9.3p나 하락한 62.3을 기록함.
- CBSI가 전월비 9.0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2010년 5월(11.0p 하락) 이후 20개월만에 처음임.
- 또한, 1월 CBSI 62.3은 2010년 8월(50.1 기록) 이후 17개월만에 최저치임.
- CBSI는 작년 12월에 연말 공공공사 발주 증가 영향으로 전월비 5.6p 상승한 71.6을 기록하며 3개월만에 70선을 회복했으나, 결국 한 달만에 다시 70선 아래로 하락함.
- 이는 연말 대비 연초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등 흑한기 공사물량이 급감하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최근 다시 불거진 유로존 재정위기 역시 건설업체 체감경기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한편,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2.1p 상승한 64.4를 기록함.
- 2월 전망치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전망치가 기준선에 훨씬 못미친 60선 중반에 불과해 건설업체들은 2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통상 2월까지의 흑한기 공사물량 감소에 의해 CBSI 부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2월에도 현재로서는 건설경기를 개선할 특별한 요인이 예상되지 않아 CBSI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매우 소폭 상승한 반면, 대형, 중소기업 지수는 하락함. 특히 중소기업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CBSI 하락을 주도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6.4p 하락한 76.9를 기록해 작년 8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소폭(1.6p) 상승한 69.6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9~11월 동안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해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 따른 통계적 반동이 작년 12월에 이어 1월까지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25.0p나 하락한 36.8을 기록하며, 1월 CBSI 하락을 주도함.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작년 연말 대비 연초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2.7, 92.3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1.8, 66.3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82.2, 80.5를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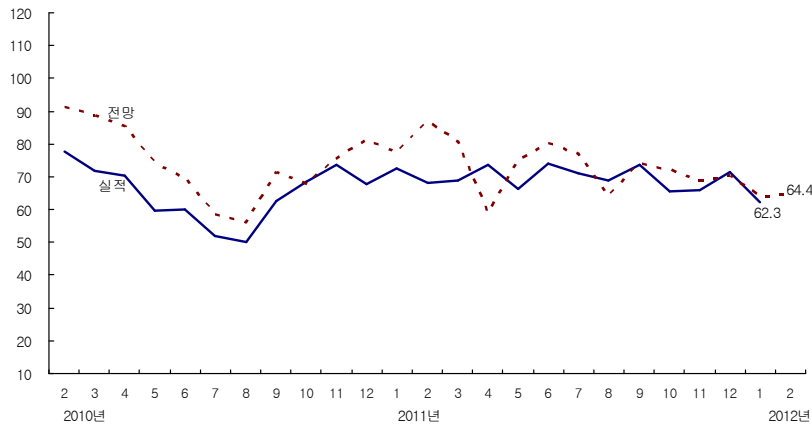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월 CBSI 9.3p 하락, 17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2012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비 9.3p나 하락한 62.3을 기록함.
 - － CBSI가 전월비 9.0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2010년 5월(11.0p 하락) 이후 20개월만에 처음임.
 - － 또한, 1월 CBSI 62.3은 2010년 8월(50.1 기록) 이후 17개월만에 최저치임.
 - － CBSI는 작년 12월에 연말 공공공사 발주 증가 영향으로 전월비 5.6p 상승한 71.6을 기록하며 3개월만에 70선을 회복했으나, 결국 한 달만에 다시 70선 아래로 하락함.
 - － 이는 연말 대비 연초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등 하반기 공사물량이 급감하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최근 다시 불거진 유로존 재정위기 역시 건설업체 체감경기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매우 소폭 상승한 반면, 대형, 중소기업 지수는 하락함. 특히 중소기업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CBSI 하락을 주도함.
 -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1.3p 하락한 83.3을 기록해 작년 8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함.
 -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소폭(1.6p) 상승한 69.6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9~11월 동안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해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이 작년 12월에 이어 1월까지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25.0p나 하락한 36.8을 기록하며, 1월 CBSI 하락을 주도함.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작년 연말 대비 연초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1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2월
											실적	전월 전망치	전망
총 합	69.0	73.8	66.3	74.1	71.1	68.9	73.8	65.4	66.0	71.6	62.3	64.0	64.4
규모별	대형	92.3	107.7	76.9	83.3	84.6	76.9	100.0	84.6	83.3	76.9	75.0	69.2
	중견	76.9	58.3	66.7	73.9	72.0	75.0	73.1	68.0	64.0	69.6	66.7	72.7
	중소	32.7	51.8	53.6	63.6	54.4	52.6	43.9	40.0	46.4	36.8	48.1	49.1
지역별	서울	82.0	87.9	68.6	77.4	80.2	78.4	91.6	74.1	73.9	72.5	73.7	67.6
	지방	49.7	53.3	62.9	71.2	57.2	54.6	47.5	52.7	53.8	47.5	52.0	61.6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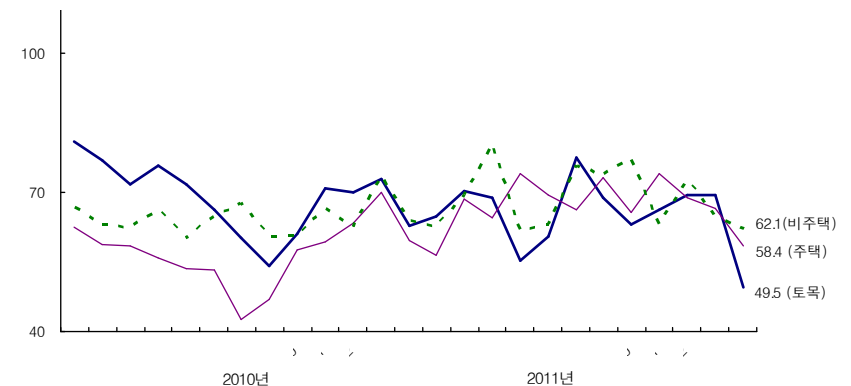
- 한편,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2.1p 상승한 64.4를 기록함.
 - － 2월 전망치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전망치가 기준선에 훨씬 못미친 60선 중반에 불과해 건설업체들은 2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통상 2월까지의 하반기 공사물량 감소에 의해 CBSI 부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2월에도 현재로서는 건설경기를 개선할 특별한 요인이 예상되지 않아 CBSI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지역별로 1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2p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는 지수가 22.6p 감소해 지방업체의 경기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2011년 12월 전월대비 1.4p 감소한 72.5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해 부진하였음.
- 올 1월에는 그동안 지수가 하락한데 따른 반작용으로 전월대비 1.2p 상승한 73.7을 기록함. 지수 상승폭이 미미해 서울업체들은 연말에 체감한 수준으로 건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함.
- 지방업체 지수는 토목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12월 전월보다 16.3p 증가한 70.1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1월 들어 정부의 토목 발주가 감소해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22.6p 급락한 47.5을 기록, 지방업체들이 체감하는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됨.

1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14.8p 감소한 56.6

- 1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14.8p 감소한 56.6로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물량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물량지수는 지난 2011년 12월에 전월보다 2.9p 소폭 감소한 71.4를 기록한 후, 1월 들어 14.8p 감소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통상 1월에는 전년도 연말 밀어내기 물량이 정리되어 지수가 평균적으로 5~10p 정도 감소함. 올해에는 다른 년도와 달리 설이 1월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계절적인 영향이 다소 컸던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전월대비 감소폭 14.8p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에서 10월 14.6p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로 건설 물량이 한 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월 지수 56.6은 지난 2010년 8월 52.6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
-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대비 20.0p 감소해 타공종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감소폭을 나타낸 가운데, 주택과 비주택 물량 또한 각각 전월대비 8.0p, 2.8p 하락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2011년 12월 전월대비 0.1p 증가한 69.5를 기록하였으나, 올 1월에는 20.0p 감소한 49.5를 기록해 공종별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연말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했던 토목 공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8.0p 감소한 58.4를 기록, 세달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비주택 물량지수 또한 전월대비 2.8p 감소한 62.1로 부진하였음.
- 업체 규모별로 모든 업체의 물량 상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중소기업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23.1p 감소해 중소기업의 물량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14.1p 감소한 69.2를 기록함.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2011년 12월에 12.5p 감소한 70.8로 업체규모별로는 전월대비 가장 크게 하락하였음. 2012년 1월에도 8.3p 감소한 62.5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한편, 중소기업의 물량지수는 지난 2011년 12월 지방업체들의 토목 물량지수 상승에 힘입어 전월보다 6.4p 증가한 58.2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1월에는 공공토목 물량의 위축으로 지수가 23.1p 감소한 35.1로 업체 규모별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임.

< 공사물량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6.6	69.2	62.5	35.1	65.6	45.1
	전망	57.6	61.5	62.5	47.4	56.4	61.5
토목	실적	49.5	69.2	45.5	31.0	59.9	35.2
	전망	56.4	61.5	59.1	47.4	55.3	60.3
주택	실적	58.4	69.2	66.7	36.2	64.1	49.9
	전망	53.6	61.5	54.2	43.8	54.9	52.0
비주택	실적	62.1	76.9	60.9	46.2	70.3	50.2
	전망	61.8	76.9	56.5	50.0	66.7	54.5

주 : 실적은 2012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6.6p, 지방업체는 25.0p 감소해 지방업체의 물량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2011년 12월에 9.0p 감소해 한달 만에 70선인 72.2로 하락하였음. 2012년 1월 들어 다시 6.6p 감소해 65.6을 기록, 지수가 세달 만에 다시 60선으로 회귀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2011년 11월과 12월에 각각 전월보다 12.4p, 6.5p 상승하였으나, 2012년 1월 들어 25.0p 급락한 45.1을 기록함.
 - 연말 지방업체를 중심으로 증가했던 토목물량이 1월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월 실적치보다 1.0p 증가에 그친 57.6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물량 침체 상황이 2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통상 2월에는 1월보다 지수가 5~10p 정도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전망 폭이 1.0p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1월에 체감한 물량 침체 상황이 2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토목 물량지수는 1월 실적치보다 6.9p 증가한 56.4로 지수가 소폭 개선이 되지만 50선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주택 물량지수는 1월보다 4.8p 감소한 53.6로 전망되어 물량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분석됨.
 - 비주택 물량지수는 1월보다 0.3p 감소한 61.8로 역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2.7, 92.3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1.8, 66.3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2.2, 80.5를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82.2	84.6	83.3	78.0	79.7	86.0
		전망	76.0	84.6	70.8	71.9	74.1	80.8
	자금조달	실적	80.5	92.3	75.0	72.9	79.6	82.2
		전망	76.8	92.3	66.7	70.2	74.8	81.9
인력	수급	실적	102.7	107.7	100.0	100.0	100.7	107.4
		전망	98.8	107.7	91.7	96.5	98.4	101.1
	인건비	실적	81.8	84.6	91.7	67.2	86.2	75.4
		전망	84.7	84.6	100.0	67.2	90.0	76.7
자재	수급	실적	92.3	92.3	91.7	93.0	91.6	93.4
		전망	90.4	92.3	87.5	91.4	89.2	92.2
	비용	실적	66.3	76.9	79.2	39.3	75.1	53.0
		전망	63.1	76.9	70.8	37.9	70.2	52.5

주 : 실적은 2012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월 예측지수임.